

스페인 교회의 사명

[이번 주말 아세르는 스페인 간디아 Gandia 에서 열린 전국 남성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들로는 “성령의 불,” “스페인 교회의 사명,” “세대를 잇는 사명,” “마지막 때의 승리” 등이 있었습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는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 코르도바 Cordova 조약 2)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출항 3) 스페인 유대인 추방

640년, 무함마드는 그만의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700년, 무슬림들은 스페인으로 건너와 무력 정복을 실시했습니다. 722년 경에는 거의 스페인 전역-북부 산악 지대 제외-이 이슬람에 정복되었습니다. 그 때 스페인 그리스도인들(주로 카톨릭)은 땅을 되찾고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레콩끼스타 Reconquista”로 불리는 이 노력은 1492년의 코르도바 조약 조인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조약으로 그리스도인(카톨릭)들은 다시 한번 스페인 전국의 통제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레콩끼스타 기간의 영적 의미를 해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좋고 나쁜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 안에 세력과 폭력이라는 악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슬람의 통치로부터 기독교 공동체의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1400년대에는 유대인과 무슬림 개종자들을 종교 재판으로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허나 스페인 안에도 참되고 열정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콘베르소 converso)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제적으로 개종했고, 진심으로 회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개종자들은 유대교 의식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유대화” 요소에 겁을 먹고, 교회 내의 “순결” 유지를 위해 종교재판을 실시했습니다. 종교재판을 당한 이들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숨긴 강제 개종자였는지, 몇 퍼센트가 자신들의 유산을 지키고자 했던 참 유대인 성도였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1492년, 스페인 군주와 카톨릭 종교재판은 연합하여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같은 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항을 했는데 그에 뒤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세계” 식민 통치가 두 세기 동안 이어집니다. 이 식민 확장도 영적 의미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좋고 나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의 동기 가운데에는 욕심과 정치 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 많은 이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와 신세계로의 기독교 확장은 유대 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세계에 변혁을 가져 온 이 세 가지 사건들-코르도바 조약이 그리스도인들의 스페인 탈환 완성의 도화선이 된 것, 콜럼버스로 인해 스페인 탐험가들의 시대가 시작된 것, 스페인 유대인들의 추방과 이산(離散)이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스페인어권 교회와 유대인들의 사명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교회(헬라어-에클레시아/스페인어-이글레시아 Iglesia)”의 신약적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계시가 있어야 와 닿는 부분입니다. 이글레시아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복음주의, 오순절파 혹은 어떤 특정 기관도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 방언에서 나아온 사람들의 무리로, 예슈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곧바로 스페인 종교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페인 종교재판, 십자군, 레콩끼스타는 유대인과 무슬림들에게만 아니라, 신실하고 구도적인(seeking)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치는 돌을 상징합니다.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향해 해방을 맞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는 참된 성도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각 민족 안의 참된 교회입니다. 각 민족 가운데 교회를 이루는 남은 자가 “세계적 혹은 우주적 교회,” “메시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합니다. 각각의 민족적 남은 자들은 문화와 표현 면에서 상이합니다. 허나 모두가 공통된 믿음, 사랑, 그리고 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계 7:4, 9, 엡 4:1-6).

서로의 다양성과 조화가 더불어 거룩한 예술 작품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지개처럼, 색채들은 달라야 하지만 하나의 아치형태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최종 목적은 당신께서 사랑하시고(엡 1:4),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엡 2:22)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엡 1:22, 2:7, 3:10, 3:21) 사람들의 무리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의 걸작으로, 여전히 창조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엡 2:10).

스페인의 역사적 교회는 선악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모두 감안할 때 그 교회의 비전은 오랜 “죽음”의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전국 컨퍼런스는 과거의 죄악과 저주들을 끊고 그들의 긍정적 사명을 다시 포용하는 예언적 기도와 선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스페인과 남미 교회의 부르심을 이렇게 봅니다.

1. 세계 선교 확장
2. 카톨릭 교회 변혁
3. 對이슬람 지하드 투쟁
4. 참된 성경적 교리의 갈망
5.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된 입지
6. 땅 ^{the Earth}의 지배권 확보
7. 스페인어권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회복

이번 컨퍼런스로부터 스페인어권 교회로 부흥과 지속적인 열매들이 전해지고 배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